월간 PIGHEAD LAB

피그헤드랩

42호
2026.6

월간 피그헤드랩은 건강한 삶과 문화를
지향하기 위한 자유로운 이야기를 담은
잡지雜誌입니다.



ISSN 3059-0280

이채연_ 울산 큰애기 고향 떠나, 아기 낳고 잘 살고 있다
서른여덟번째 원고

조은영_ L♡보ME 칼럼 3. 소리와 맛의 지금
세번째 원고

김희진_ DIY 개인 플랫폼의 드라마터지
스물아홉번째 원고

한량윤씨_ 아빠의 정원
아홉번째 원고

오종원_ 출마에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서른여덟번째 원고

울산 큰애기[1] 고향 떠나, 아기 낳고 잘 살고 있다 (ft: k-mom 성모)



이 채 연
창작가 / 관심 받고 싶어 하는 주부

한달동안 스페인 여행을 다녀왔다.
여행의 후반, 내가 본 것들을 곱씹어 봤을 때 종합적으로 정리된 이미지는 성모상이었다. 나의 스페인 여행기를 유튜브에 올린다고 상상해본다면 그 썸네일 (Thumbnail)로 성모상으로 고를 것이다. 찐카톨릭의 나라답게 거리에도, 가정집에도 성모님이 계셨다. 성모님의 눈은cctv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았다. 소소한 경범죄도 저지르지 못 할 것 같았다. 또 당연한 말이지만 성당과 수도원에도 가지각색의 성모님이 계신데, 성당 밖 세속의 거리를 걷는 사람들을 성당 안으로 다정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았다.

성당으로 들어서면
천사와 함께 아들의 탄생을 환희의 벅찬 마음으로 기다리는 성모님, 아기 예수를 안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는 성모님. 귀여운 꼬마 아들과 노는 성모님, 고난 속에 있는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모님, 수난 당한 아들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슬프게 통곡하는 성모님, 아들의 성스러운 죽음 앞에서 절절한 슬픔은 뒤로 한 채, 따스하게 품어주는 성모님. 이런 다채로운 모습들이 나에게는 아들을 키우는 엄마들의 수호 성인(聖人)이자 대변인으로 다가 왔다.

1) '울산의 젊은 여성' 또는 '울산의 예쁜 아가씨'



울산 큰애기 고향 떠나,
아기 낳고 잘 살고 있다_
2026, 한지에 수성 목판,
24x19cm



헌화의 장미_2026,
한지에 수성 목판,
24x19cm

그러면서 나의 육아에, K-mom(Korean mother)의 일상에 대입되었다.
열심히 젖을 먹는 아이를 사랑스럽게 바라 보는 엄마, 아들이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물개 박수를 치는 엄마, 열감기로 끙끙 앓으며 잠든 아들이 걱정 되어서 잠을 잘 수 없는 엄마, 친구와 다투고 몸과 마음에 상처 입은 아들의 편이 되어 주고 싶은 엄마. 아들이 군대가는 상상만으로도 '나는 ㄱ ㅏ끔... 눈물을 흘린 ㄷ ㅏ'[2]라고 sns에 쓰는 엄마. 곧 있을 미래에 아들이 사회에서 힘든 일을 겪는다면 세상을 원망하며 엉엉 울 것 같은 엄마.

2026년 한국에 사는 아들 맘(mom)으로서
동지애를 느낄 수 있는 존재이자, 마음에 품고, 의지하고 싶은 성모를 곁에 두고 싶었다. 그런 의지로 탄생한 것이 <울산 큰애기 고향 떠나, 아기 낳고 잘 살고 있다>이다. 제목 그대로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아이를 키우는 나의 이야기이자 자화상이다. 동시에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엄마들의 모습을 한 신상(**神像**)이다. K-mom들의 수호령이자 친구 같은, 그런 성모님 하나쯤 있어도 좋을 것 같지 않은가?

K-mom성모에게 장미를 헌화한다.
더 경건하게, 사랑스럽게 내놓고 싶었다. 작품의 주인공은 사랑을 많이 베푼 자다.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 헌화의 꽃으로 장미를 선택했다. 장미는 여린 얼굴하고 있지만 줄기에는 가시가 있어서 까탈스러운 면모가 있다. 우리의 아이 같기도 하다. 그렇기도 하지만 장미를 고른 이유는 뜬금 없지만, 나의 장래희망인 팜므파탈에서 왔다. 사람을 미혹하여 끌어 들이지만, 자기의 성깔을 뿜어대는 사람. 그런 모습이 장미와 비슷하다고 생각 했다.

K-mom성모는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사랑을 베푸는 역할만 하는 것은 사람을 소진하게 만든다. 앙칼진 마음의 가시를 드러내어 할퀴고 싶다. 그래야 다음 사랑을 생산해 낼 수 있다. 더 깊어진 사랑 될 것이다. 갈비뼈 같은 가시에는 사랑과 이기심이 공존한다.

2) 가수 채연님이 sns에 쓴 문구를 패러디

이 작품의 원제목은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가 있는 곳, Spain>이였다.
7월 중순 오픈 하는 울산 목판화페스티벌에 전시 예정으로 이 행사의 컨셉에 맞추어 작품 제목을 변경하였다. 매해 주제가 있는데, 올해는 'K-Culture 공존'이 주제이다. 작년에는 '다중 이미지'가 주제였고 나는 '고향 울산을 떠나 가정을 꾸리고 충북 진천에 살고 있다는 나의 안부 전하는 작품을 출품 했었다. 올해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이 글의 제목인 <울산 큰애기 고향 떠나, 아기 낳고 잘 살고 있다>는 말 그대로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 나의 근황을 고향에게 전하는 내용의 작품을 출품한다.

내가 이렇게 연이어 고향에게 안부를 전하지만
안타깝게도 고향에서 나의 이야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들어주는 사람도 없다. 발신만 되고 수신이 안되는 전화기, 혹은 허공에 외침 같은 것이다. 영화 러브레터(Love Letter,1999)에서 첫사랑을 잃은 여주인공이 아무도 없는 눈밭에서 애절하게 외치는 "오겐키데스까? 와타시와 겐키데스 (お元気ですか?, 私は元気です: 잘 지내나요? 전 잘 지내요)"와 비슷한 맥락일까? 아무튼 나는 영화 주인공처럼 막 애절하진 않지만, 나의 안부를 고향에게 전하고 싶었다.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한데 굳이.

왜 고향에 안부를 전하고 싶었을까?
고향 울산은 출생지라는 지리적 위치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태어나고 자란 시간이 있는 곳 이자, 어린시절로 소환되어 버리는 마음의 장소인 것 같다. 살다 보면, 과거의 어느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거나, 막연한 미래를 상상하면서 좋기도 하다가 막막했던 어린시절이 생각날 때가 가끔 있다. 그럴 때 울산을 떠올린다. 안부인사를 한다. 어른이 된 내가 어린시절의 나에게. 그러면서 '나 진짜 잘 지내고 있는 거지?'하며 확인하고 확인한다.



(상) Museo de Bellas Artes de Granada에서 전시 된 성모상.
알함브라 궁전 옆 카를로스 5세 궁전 안에 있다.

(중) 길에서 본 성모. 건물마다 성모님이 계셨다.

(하) 과딕스에서 본 성모님. 이 지역의 독특한 지형을 배경으로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님이 다정해 보인다. 이 그림 덕분에 도시의 품 안에 안기는 듯 포근한 느낌이 들었다.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스페인 '과딕스'의 풍경







과딕스 풍경





과딕스 풍경

L♡보ME 칼럼_ 3. 소리와 맛의 지금

조은영
기획자 / @ dalnurilab

늦봄에서 여름으로 지나는 하지(夏至)가 되면, 기나긴 낮의 끝에서 만나게 되는 밤의 별빛이 더욱 눈에 들어온다. 이맘 때의 아카시아 향기와 한낮의 땅의 열기가 이슬과 만나 만들어지는 향긋한 저녁의 밤공기는 소소한 행복을 느끼게 하곤 한다. 도시에 살 때는 전혀 느껴보지 못한 이런 자연과의 교감은 외부세계에 대한 섬세한 지각적 전환을 만들곤 하는데, 이번 칼럼은 그런 소소한 경험과 거대한 우주적, 초월론적 시공간이 교차했던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련다. 다소 추상적인 이야기라서 몇 년 전 인상깊게 보았던 Celine Song(송하영)감독의 영화 '인연(past lives)'의 창을 통해 설명하려 하는데, 그에 앞서 송하영(Celine Song) 감독이 ' 넘버 3(1997년)'를 감독한 송능한씨의 딸이라는 것을 먼저 말할 필요가 있다. 두 세대의 시간으로 이어진 이 영화는 송하영 감독 자신의 자전적인 에피소드로 보이는 이야기가 영화의 중간 중간에 등장하고 남녀 사이의 드라마에 등장하는 눈물, 콧물을 자아내는 러브씬(Scene)이나 미쟝센(Mise-en-scène)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이 영화에 매력은 동서양의 시간관의 차이가 만든 두 남녀의 삶을 관통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세계관을 병렬적(Parallax)으로 이끌어가며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는 것에 있다.

그리고 그러한 서로 다른 가치관이 교차되는 순간 순간들을 오로지 둘의 대화로 이야기를 이끌어 간다는 점이 블록버스터의 볼거리가 풍부한 영화보다 무엇보다 흥미로웠다. 그동안 탐색했던 모국어 스키마(Schema)와 연결되는 지점이 있기도 했고, 언어적 상호작용이 점점 위축되는 사회전반적 분위기와 내 자신의 개인적 시선에도 변화가 필요 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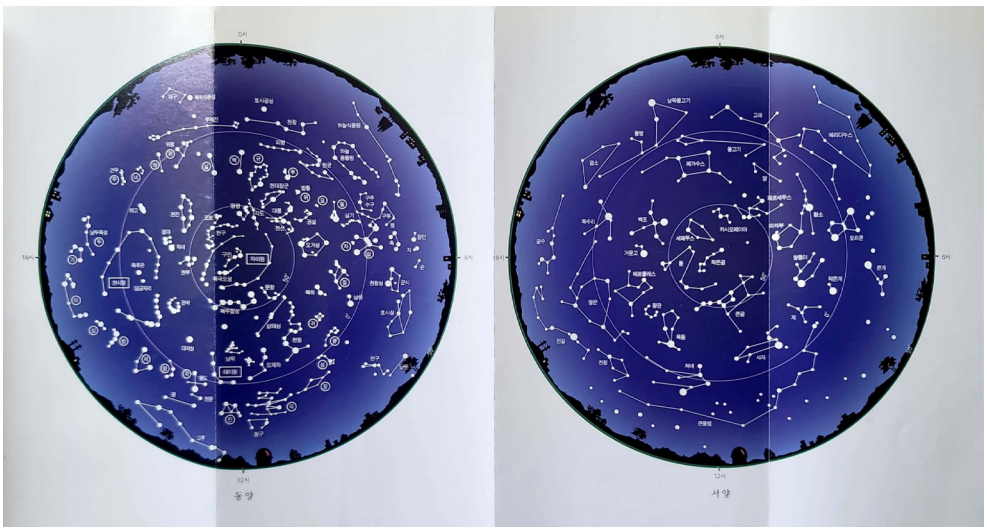






이미지 출처 IMDb
https://www.imdb.com

2023년에 처음 기획했던 600년 전, 한,중,일이 공유했던 천문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를 재해석했던 전시[**神**천상열차분야지도]는 지구의 밤하늘에 똑같이 보이는 별들을 동서양이 서로 다르게 연결
했다는 것을 안상현 박사의 저서(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별자리_현암사,2005)를 통해 알게 되면서 시작됐다.



이미지 출처 :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별자리_현암사,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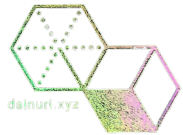
클래식 음악을 전공한 내가 독일 유학 시절부터 가졌던,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질문의 해답은 펜데믹이 시작된 2020년 윤달(**閏**)에 경험했던 어떤 '시간' 경험과 600년 전 천문도(**天文圖**)의 '공간'을 재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비로서 찾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경험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 경험을 해석할 새로운 말뭉치의 Vocabulary가 필요했고, 그러한 필요를 한자의 상형(**象形**)성과 디지털 공간의 기호적 이미지로 대체하면

서, 새로운 인식론적 프레임을 담을 수 있는 매체를 찾아야 할 필요성이 감지됐다.

20대 후반에 송능한 감독의 영화 '넘버3'를 보았을 때 처음 경험했던, 우리말 대사가 만들어내는 생경한 웃음과 슬픔이 뒤엉킨 웃프의 카타르시스는 내게 모국어의 새로운 지평을 연 기억으로 남았고, 들어본 적만 있는 북두칠성 외에 별자리에 별관심이 없던 내가 2020년 가을 어느 날, 선명하게 빛나는 오리온 별빛을 목격하고 '오리온 쵸코 파이'를 떠올리게 된 것은 7개의 별이 동그랗게 둘러진 오리온 제과의 로고 때문이다. 그것이 달누리웹에 북두칠성을 중심에 놓은 무의식적 이유라면 이유랄까? 사실 오리온 '쵸코 파이'는 미국의 '문파이'를 모방했고, 한국의 탈근대가 시작된 7-80년대 한국의 중산층 의식주 전반의 문화는 미국과 일본의 문화를 모방했기 때문에,한국의 X,Y- 세대는 우리 문화보다 영미문화에 더 친숙한 환경에서 자라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성장했던 나를 전회(Kehre, Martin Heidegger)시킨 2020년 '윤달(leap month,閏)'의 시간 경험은 내가 지난 6년 동안 별빛을 지도 삼아 탐색했던 한자의 상형구조와 digital적 상호작용을 우리말 스키마(Schema)와 연결하려는 실험을 하게 만들었고

그것은 지금 모국어 스키마를 형성하는 시간의 무의식적 구조(matrix)에 얽힌 소리의 세계로 이행하고 있는데, 내부 스키마에서 발현되는 희로애락의 감정과 '사랑'이라는 맨 처음(太初)의 세계를 되찾으려는 원심력과 구심력의 힘이 자석처럼 나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www.dalnuri.vercel.app/



오리온



(위) 오리온CI
(아래) 2025년 10월 12일 일본 나라현

DIY 개인 플랫폼의 드라마터지: <교양수학 김희진>과 <삿상제>의 투채널 구조



김 희 진
노동자

구체적으로 언제를 시작으로 잡을지 결정하지는 못했지만, 두 개의 유튜브 채널을 병렬적으로 만들어 말이나 행동을 쌓아온지도 시간이 꽤 지났다. 하나는 수학과 그의 교육에 관한 채널인 〈교양수학 김희진〉이고, 다른 하나는 발화 실험 그 자체에 관한 채널 〈삿상제〉다. 두 채널은 성격과 구성 방식이 아주 다르지만, 모두 발화자인 본인이 거의 모든 곳에 등장하고 그가 기획, 촬영, 출연, 편집, 업로드, 피드백 관리를 수행하는 DIY 개인 플랫폼 위에서 작동한다.

그러므로 이들을 바라볼 때에 의미를 생산하는 구조, 즉 발화의 내용 자체보다 말의 발생 조건, 발화의 목격이나 검증자의 위치, 그 말이 어떤 방식으로 다시 발화자에게 돌아오는가를 관찰하는 것이 이것의 이해 관계를 파악하는데에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교양수학 김희진〉과 〈삿상제〉는 단순히 분열된 자아가 각자 소생하는 콘텐츠가 아니라, 같은 발화자를 두 개의 전면무대에 배치하는 투채널 드라마터지라 하겠다.

〈교양수학 김희진〉은 설명 가능한 발화를 (대안 교육적) 제도화하는 무대로 기능하고자 한다. 여기서 김희진은 수학 문제를 읽고, 그것의 조건을 정리하고, 적당히 사적인 풀이 과정을 제시하며, 주관적 관찰을 정당화한다. 그리고 모인 사람에의 신뢰성의 관점에서 그것을 강요받는다. (그것이 의도된 장이기도 하다.) 발화 또한 명료해야 하고, 오류는 발각되는 즉시 수정되어야 하며, 설명은 일정 이상 교육적 책임을 가진다. (그것을 자처하며 발화

하는 채널이기 때문이다.) 이에 관객의 피드백은 이 채널을 단순한 영상 저장소가 아니라 지속적인 검증의 장으로 만든다. 즉, 관객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니라 질문자, 반론자, 요청자, 공동 검토자로 기능하고, 그것을 나는 매번 청하여 바란다. 이 점에서 〈교양수학 김희진〉은 자타의 반응을 통해 갱신되는 피드백 순환의 공연이다.

반면 〈삿상제〉는 즉각적인 외부 피드백을 중심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본인/발화 생성자가 외부 피드백을 애초에 아예 차단해 놓았다. 그러므로 뚜렷한 반응 공동체를 기대하지 않는 흑백 영상, 자조적 독백, 지극히 실험적인 음악, 개인적 기록이 축적되는 시공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한 무반응이라 취급하기도 어렵다. 〈삿상제〉는 외부 피드백을 차단하거나 최소화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폐쇄된 사적 공간은 아니다. 이 채널 역시 '유튜브'라는 공적 플랫폼 위에 놓여 있으며, 〈교양수학 김희진〉을 통해 김희진이라는 이름과 얼굴을 먼저 접한 관객이 알고리즘, 검색, 추천, 채널 이동을 통해 〈삿상제〉로 흘러 들어오는 경우가 분명히 생기기 때문이다. (그것을 <교양수학>채널에서 노출하는 이도 왕왕 생긴다.) 이때 관객은 수학 해설자를 기대하고 들어왔다가, 전혀 다른 발화 조건과 기괴한 행색을 마주하게 된다. 즉 〈삿상제〉의 관객의 대개는 처음부터 그 채널의 언어를 찾아온 관객이라기보다, 〈교양수학 김희진〉이 만들어낸 신뢰성과 노출 구조를 경유해 우발적으로 도착한 관객일 확률이 높다. 하지만 그의 유사성이나 차이성을 택하거나 택하지 않는 이가 있을 뿐이다. (피드백을 막아놓았기 때문에 이외의 경우는 더 이상 조사할 수 없다. 표본도 매우 적지만, 그들이 먼저 자신을 밝히지 않는 한 찾을 생각도 없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은 여기서 단순한 추천 기술을 넘어, 두 전면무대 사이를 연결하는 비의도적 동선으로 작동한다. 헌데 수학 해설 채널에서 형성된 이름, 얼굴, 목소리의 신뢰가 〈삿상제〉에서는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작동할 수 없다. 분명히 같은 발화자가 등장하지만, 그는 더 이상 문제를 풀이하고 검증받는 해설자는 모습을 감추고, 반응을 막아둔 채 자신의 말과 소리를 축적하는 정신나간 교도가 떠들고 있기 때문이다.



교양수학 김희진

@poiecis · 구독자 1.16만명 · 동영상 507개

고졸인디수학 ...더보기

Instagram

채널 맞춤설정 동영상 관리

홈 동영상 Shorts 재생목록 게시물 멤버십 스토어



'문제를 푸는 방법만 익히다보니 정확한 개념을 묻는 문제를 어려워 ...

조회수 65,487회 • 1년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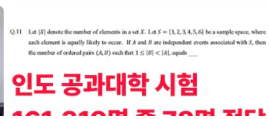
채널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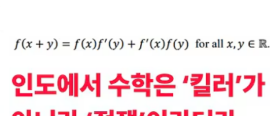
채널 회원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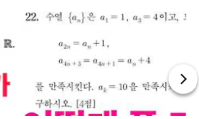
가입

추천











삿상제

@poiesiq • 구독자 189명 • 동영상 196개

대안 문학, 일련의 포르노 ...더보기

Instagram

구독중

홈 동영상 Shorts 게시물

최신순 인기순 날짜순



물리적인 시간의 퇴적

조회수 27회 • 6일 전



자기검열

조회수 55회 • 2주 전



종말을 위한 검술 연구

조회수 103회 • 2주 전







따라서 〈삿상제〉의 무반응성이 순수한 고립으로 나타날 수도 없다. 그것은 〈교양수학 김희진〉을 통해 유입될 수 있는 관객의 시선을 이미 전제하면서도, 그 시선이 즉각적인 질문이나 정정, 평가로 전환되지 못하도록 지연시키는 구조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그들은 검증자가 아닌, 목격자가 된다. 그리고 이 변화가 두 채널 사이의 중요한 연극적 전환이다.

다시, 〈삿상제〉에서 발화는 이상의 (자기) 관찰과 되먹임을 통해 작동한다. 촬영된 얼굴, 목소리, 음악, 편집된 장면은 다시 발화자에게 돌아오고, 발화자는 그것을 보거나 들으며 자신의 말하기를 재인식한다.

그러므로 〈교양수학 김희진〉이 공적 전면무대이고 〈삿상제〉가 사적 후면무대인 것이 아니다. 〈삿상제〉 역시 공적 플랫폼 위에 게시되는 또 하나의 전면무대다. 그것의 수행이 공적 규칙을 따르지 않을 뿐, 〈삿상제〉는 〈교양수학 김희진〉의 숨겨진 내면을 폭로하는 채널이라 단정할 수 없다. 반대로 후면처럼 보이는 것들을 다시 전면화하는 장치로 사용된다. 어디에도 분류하기 어려운 시적/음악적/병적 발화는 폭주적인 고백이라기보다, 설명 가능한 주체가 되기 위해 걸러낸 말들, 그렇게 거르지 못한 말들을 플랫폼 위에 배치하는 방식이다. 다만 완결된 서사보다 얼굴, 목소리, 소리, 반복, 화면의 질감이 발화 조건을 구성하므로 난해할 뿐이다.//



아빠의 정원

한량윤씨
게으른 창작자

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 베란다를 발 디딜 틈도 없이 빽빽하게 채우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아빠가 키우는 화분들이다. 여름이면 그 작은 베란다에 무성하게 우거진 식물 잎사귀들을 헤치고 빨래를 널어야 하는 엄마의 고독한 싸움이 시작된다. 결국 그 싸움의 불똥은 눈치 없는 아빠에게 튀고 만다. 그런 날에는 어김없이 진짜 부부싸움이 시작되곤 한다. 여러 해 동안 그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아빠의 화분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잦은 전시 행사와 기념일에 들어오는 '신입 화분'들까지 대부분 거두어 키우신 덕분에 베란다는 매년 더 무성해져 왔다.
사실 아빠 입장에서 보면 조금은 억울할 법도 하다. 아빠 손을 거친 식물들은 대부분 죽지 않고 오래오래 뿌리 깊게 살아남기 때문이다. 가끔 아빠가 키우던 작은 화분들을 내 집이나 작업실로 가져와 키워볼 때가 있는데, 이상하게도 노란 잎이 돋으며 아주 쉽게 시들어버리곤 했다. 물 주는 때를 놓쳐 다 말라 죽기 직전, 아빠에게 '입원'을 시키고 몇 개월 후에 가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싱싱하게 살아나 있다. 분명 같은 물과 같은 빛을 주었을 뿐인데 말이다.

그런 아빠가 시골 고향 집을 리모델링하게 되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신 순간은 바로 마당 정원을 디자인할 때였다. 사실 시기적으로 볼 때 정원은 집이 모두 완성된 이후, 마당을 통해 집까지 걸어 들어오는 동선과 여러 상황을 고려해 나중에, 아주 나중에 생각하고 싶었다. 나의 주된 목적은 우선 집 내부에 있었기에 마당과 집 밖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



앞마당에서 머위와 참나물을 뜯는 아빠

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의 시작과 과정의 모든 조율은 나와 남편이 맡아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빠는 집 외부의 나무와 정원, 텃밭에 온통 정신을 쏟으셨다. 지난해 늦봄에는 눈깜짝할 사이에 옆마당 흙을 갈아엎으시더니 방울토마토, 가지, 고추 같은 밭작물들을 뚝딱 심으시기도 했다.

“내가 사람 불러서 30만 원 주고 싹 비라(베어버리라) 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수십 년 전부터 할머니는 가끔씩 내려오는 큰아들과 본의 아니게 '식물 전쟁'을 치러야 했다.
아빠는 고향 집에 올 때마다 좋아하는 꽃과 나무를 심는 것 자체에서 큰 행복을 느끼셨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씨앗이나 묘목을 가져와 마당 곳곳에 심었다. 하지만 그것을 키우고 가꾸어야 하는 몫은 온전히 그 집에 살고 계신 할머니의 책임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빠는 심고, 할머니는 뽑고, 그러면 아빠는 또 심고, 다시 할머니는 없애는 소리 없는 전쟁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셈이었다.



뒷마당의 잡초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덮어두었다

시골 마당의 식물들은 집에서 키우는 화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야생적이고 끈질기며, 무섭도록 자라나는 게 특징이다. 특히 봄이 지난 초여름부터 내리쬐는 태양과 빗물을 머금은 풀들은 마치 괴물처럼 자라난다.
앞마당과 뒷마당, 그리고 옆마당까지 온통 아빠가 심어놓은 나무와 꽃, 그리고 심지도 않은 잡초 무리가 집을 포위하듯 에워쌌다.
그제야 나는 수년 전 할머니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셨는지 온전히 공감할 수 있었다.

우선 풀이 많아진다는 것은 각종 곤충과 벌레들이 들끓는다는 뜻이다. 심지어 그것을 잡아먹는 개구리나 뱀까지 실제로 출몰하는 그런 '깡시골'이니 말이다.
안 그래도 한여름 습도가 동남아시아처럼 높은데, 온 사방이 풀숲이라니! 정말 당장이라도 약을 쳐서 싹 밀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아빠, 집 주변에 밭 가꾸고 꽃 심는 것도 좋은데, 제발 구역 좀 정해놓고 해요. 여기는 우리도 걸어 다니면서 일해야 하는 곳인데……!"
반은 속상함으로, 반은 간곡한 부탁을 담아 말씀드리면 순간 주춤하시기도 하지만, 아빠는 이내 고집을 부리신다.

"시골집은 자연스러워야지. 나는 인위적으로 딱딱 나누는 거 싫다.

사실 내가 아빠의 고향 집을 두고 마음속으로 남몰래 계획해 둔 것이 하나 있다.
법정 스님은 생전에 묘를 만들지 말라 하셨고, 타계하신 후 유골의 일부는 스님이 머무시던 길상사 나무 주변에 뿌려졌다. 김영갑 사진작가 역시 자신이 일군 제주도 두모악 갤러리 앞마당에 뿌려져 자연으로 돌아갔다.
나는 훗날 부모님을 사후에 모시게 될 때, 애초부터 이 시골 집을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사방이 막힌 납골당은 답답하고, 깊은 야산은 길치인 내가 자주 찾아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도 유골함을 집 안에 모시는 것은 다소 과한 일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아빠의 고향 집 정원에 부모님을 모시겠다는 계획을 혼자 조용히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 생각을 지난해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다 슬쩍 꺼낸 적이 있다. 부모님은 처음엔 약간 당황하신 듯했으나, 이내 그 뜻을 꽤 깊게 음미하셨고 시간이 조금 지나자 미래의 그 시간을 오히려 안심하시는 눈치였다.

특히 아빠에게는 이 집이 평생 그리워한 고향 집이자 자신이 자라온 '터'이며,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평소의 철학에도 부합하는 지점이 있었기에 더욱 마음에 와닿으셨을 것이다.



목단 꽃



정원을 가꾸시는 아빠

어쩌면 아빠가 정원 꾸미기에 그토록 열정을 쏟으셨던 데에는, 당신의 마지막 안식처를 스스로 가꾸겠다는 숨은 이유가 생겼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올해 봄, 4월과 5월 사이에는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로 예쁜 꽃들이 피어났다. 철쭉과 목단, 나리꽃, 그리고 이름을 다 알지 못하는 아름다운 꽃들이 정원을 가득 메웠다.
“이 나무는 앵두나무야. 할머니가 유일하게 심으셨던 나무라서 절대 벨 수가 없어.”
앵두나무라니……!
할머니의 작은 키를 닮은 나무에 자잘한 분홍빛 꽃들이 피어났다. 아빠는 마당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앵두나무를 마당 중앙으로 옮겨 심으시고 정성스레 울타리까지 만드셨다.
조금 더 시간이 흐르자 앵두나무에는 새빨간 앵두가 알알이 맺혔다. 처음으로 새콤달콤한 열매를 따 먹으며, 나는 아이처럼 신이 났다.



마당 가운데로 이전한 할머니의 앵두나무

계속해서 정원은 자라고 있다. 내가 미처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만큼
식물들은 부지런히 계절을 갈아입고, 아빠의 손길은 마당 구석구석을 더 깊숙이 파고들 것이다. 한때는 그저 통제되지 않는 풀숲처럼 보여 내 눈을 찌푸리게 했던 그 무질서함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어쩌면 아빠가 만들고 싶었던 것은 인위적으로 구획된 정형화된 정원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대로 피고 지는 '삶' 그 자체의 풍경이었을지도 모른다.
할머니의 흔적인 앵두나무가 마당 한가운데서 당당히 열매를 맺듯, 아빠가 땀 흘려 심은 나무들도 이 터에 단단히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찾아올 먼 미래에, 부모님이 자연의 일부로 이곳에 돌아와 안식하게 되는 날에도 이 정원은 여전히 푸르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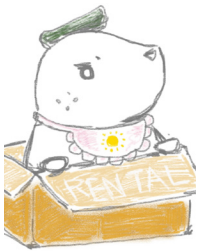
이제 나에게 아빠의 정원은 단순히 가꾸어야 할 노동의 공간이 아니다. 할머니와 아빠, 그리고 나에게까지 이어질 시간의 궤적이 겹쳐지는 곳이자, 우리 가족의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 페이지가 쓰여질 약속의 숲이다.

오늘도 아빠의 정원은 자란다. 아빠의 우주가 그러했듯, 멈추지 않고 빽빽하게, 그리고 눈이 부시도록 다정하게.





새콤달콤 빨간 앵두



출마에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오 종 원
문화소비자 / 피그헤드랩 운영

지난 6월 3일 진행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나는 한 지역구에서 그 선거에 출마하였다. 낙선하였고. 약간의 회복시간이 필요했다.
선거 유세를 하느라 월간 피그헤드랩은 2개월이나 휴간을 하였다. 사실 간만에 다시 글을 쓰고 편집을 하려니 부담감이 없지 않았다. 선거에 대한 소설을 쓰기 시작하였는데 갑자기 '이걸 누가 관심있어 할까?' 병이 도지는 게 아닌가. 계속 글을 쓰다 지우다를 반복하는 것이다.
아무튼 며칠을 키보드를 만지작거리다가 다시 손을 풀자는 의미로, 선거에 대한 간단한 소회 및 경험을 메모처럼 남겨 본다. 혹시나 모르지. 이 글을 읽을 여러분도 언젠가 출마를 할 수도 있지 않는가. 출마의 생각이 없다면... 여행기처럼 생각해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출마에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이 글을 쓰기 직전 방금도 전화를 받았다. 같은 당 다른 지역 출마자(그리고 같은 낙마자)인데 꽤 가까워져서 종종 전화를 하고는 한다. 어떤 얘기를 나누다가 선거에 들어간 돈이 너무 아깝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사실 돈 이야기는 어떤 대화를 나눠도 거의 매번 나온다.
해당 출마자는 약 3,000만원 정도를, 나는 약 4,000만원 정도를 이번 선거에 쓰게 되었다. 3,000만원이던 4,000만원이던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다. 누군가의 1년 연봉, 차 한대,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가고도 남을 돈일 수도 있다. 참고로 내가 출마한 지역의 경우, 제한 금액이 약 5,400만원이었다.(지역마다 다르다.) 이 액수는 "선거와 관련되어서 이 이상 쓰지



이 벽에 현수막을 걸기 위한 비용 부터가 몇 백만원이다.

마세요” 라고 선관위가 제한해둔 금액이다.
처음 출마를 결심하였을 때 하더라도 돈이 이정도로 나갈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하였다. 나에게 출마를 제안해주신 분이 1~2,000만원이면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막연히 그 정도 겠구나 생각하였지, 선관위에서 5,400만원이라는 제한 금액을 들었을 때 “에엑 설마 이걸 다 쓴다고?” 하면서 남 얘기처럼 생각하고 말았던 것이다. 나중에 들어보니 대부분의 후보들이 제한금액을 채운다고는 한다. 제한금액을 넘겨서 축소 신고하는 경우도 없지 않고. 또 실제로 선거를 뛰어보니 그 정도 금액은 충분히 쓰겠더라. 그나마 내 경우 선관위에서 제시한 최대금액보다는 덜 쓴 것이다.

후보에 등록하기 위한 프로필사진 촬영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이 다 돈이었다. 표현 그대로 모든 것이 돈을 잡아먹는다. 여러분이 선거라고 생각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것들, 가령 ‘오종원’이라고 쓰여 있는 선거 운동복 같은 것부터 내 얼굴이 그려진 커다란 현수막까지 하나하나 전부다.
그리고 선거용이라고 하면 프리미엄이 붙는다. 가령 기본 중에 하나는 선거사무실 임대이다. 선거사무실 임대를 해야만 내 얼굴과 이름이 인쇄된 커다란 현수막을 걸 수가 있다.(선거사무실 외벽에만 현수막을 걸 수 있다는 규칙이 있다.) 선거용 사무실을 알아본 다는 것은 내가 을이 된다는 소리이다. 급한 것은 후보이고 건물주는 아쉬울 게 없다. “뭐 선거용? 그러면 월세 더 내야해~”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 기준 월세 120만원으로 올라와 있던 사무실은 150만원으로 가격이 오른다.
선거 사무실을 계약하면 개소식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 “저 오종원이 해내겠습니다! 뽑아주세요!”라고 외치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그런 퍼포먼스이다. 이걸 왜 하냐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는 하지만, 아무튼 돌잔치 마냥 해야만 하는 자리이긴 하다.(실제로는 국회의원이 방문하며 지지자들을 모집하는 등 결집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 개소식을 하기 위해 사람들이 앉을 의자나 단상 등의 집기류를 또 빌려야 한다. 덕분에 이런 행사만 세팅해주는 업체가 따로 있다는 것도, 의자 등의 집기들을 하루 렌탈(정확히

한 3시간정도) 100만원에 뚝딱 진행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선거철이 되면 여러분의 집 우편함에 꽂히는 공보물. 적당히 얇은 종이에 후보자가 자기소개와 허황된 공약들을 치덕치덕 써놓은 그 전단지 비슷한 것.
이 공보물의 양은 선관위에서 정해준 양이 있다. 그 지역구의 세대 수만큼 만들어야 하며, 이 공보물을 만들어 제출하지 못하면 벌금이라고 한다. 나는 지역구가 넓은 탓에 약 6만부를 찍어내야 했다. 내 경우에는 운송비까지 하여서 900여 만원이 소요되었다. 그나마 디자인을 내가 직접 하여서 망정이지, 만약 디자인을 발주까지 하였으면 몇 백은 더 추가되었을 것이다. 다른 것은 다 절충하더라도, 이 공보물은 정해진 숫자가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한다. 울며 겨자 먹기 1호이다.

울며 겨자 먹기 2호이자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인건비였다. 여기서 잠깐 인력에 대해 설명하자면, 각 선거구마다 인원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내 경우 1명의 사무장, 1명의 회계책임자, 그리고 8명의 운동원이 있었다.(나는 지역구가 커서 많은 편이긴 하였다.)
사무장과 회계책임자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다. 밑에서 또 설명하겠지만 후보자는 눈 뜨고 감을 때까지 현장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그 쉴 새 없는 일과 속에서 후보자의 일을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러닝메이트가 바로 사무장이다.
그리고 또 회계담당자. 선거 사무실은 정말 돈 쓰느냐 바쁘다. 물 한통부터 간식, 홍보용품, 수백 수천장의 명함, 선거와 관련된 금액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간다. 그런데 조금 짜증나는 것이, 이것을 일일이 기록 및 등록해야 한다. 또 선거가 끝나고 나면 회계보고서를 작성해 선관위에 보고하는 것이 필수이다. 당선과 낙선에 상관없이 무조건! 그러다 보니 이 일만 해줄 수 있는 회계책임자가 또 있어야 하는 것이다.
사무장과 회계담당자는 일당 15만원으로 계산한다. 선거 유세라는 것이 별도의 쉬는 날을 따로 두지 않으니, 같이 활동하는 내내 15만원씩 빠져나간다.

그리고 대망의 운동원(선거 사무원이라고 한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후보와 같이 인사도 하고 율동도 하고 사실상 선거 유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분들. 인당 일당 11만원씩, 총 13일을 고용한다. 그렇게 계산하면 1인당 143만원이다. 나는 8명을 고용했으니 벌써 돈 천만원이다.
얼추 이렇게 저렇게 돈을 쓰고 나니 내 경우에는 인건비에만 1,500만원 정도 소요되었다. 이게 참 웃기다. 내가 받을 일당이 11만원이라고 생각하면 큰 돈이 아닌데, 막상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약 10명의 사람들에게 하루에 100여만원 이상이 나가는 게 체감이 많이 되더라.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의 아이러니를 느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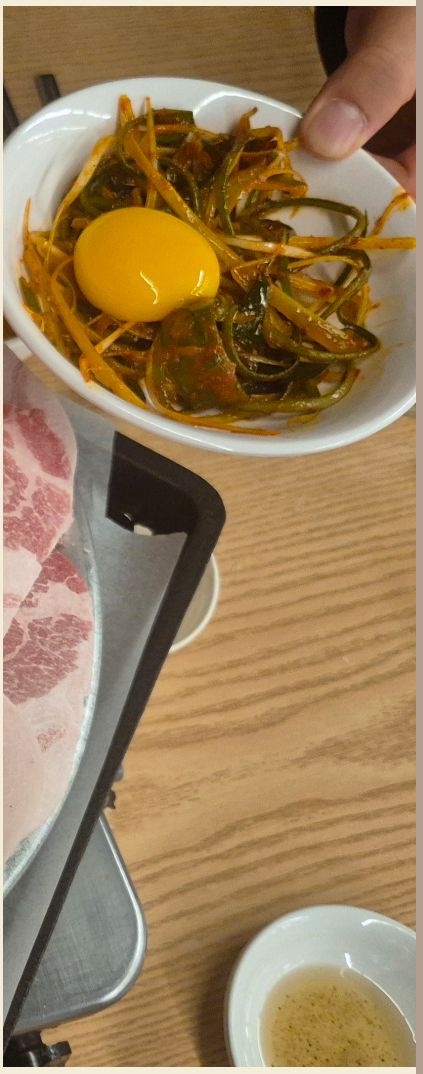
사실 울며 겨자 먹기 시리즈는 한 개 더 있다. 바로 유세차량이라는 것이다. 여러분의 일상에 평온함을 깨뜨리는 음악소리, "기호 x번~ 김철수~" 유행하는 유행가나 신나는 뽕짝 음악에 맞춰 개사 된 선거송. 그리고 이것을 틀며 돌아다니는 차량. 이것도 전부 돈이다. 음악과 트럭까지 한 1,500만원 한다고 들었는데 나는 이것은 하지 않았다. 소음공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처럼 생각하는 후보들도 있기는 한데 웃긴 게 남이 하면 나도 안하기가 쉽지 않다. 나는 유세차량을 동원하지 않은 게 선거 막바지에 가서 크게 후회되는 지점이기도 하였다. 예컨대 내가 선거기간 중 경쟁상대로 여긴 후보가 '아기 상어'라는 동요에 맞춰 선거송을 만든 것이다. 이게 효과가 기막히더라. "아기 상어 뚜르르뚜르~" 이 노래가 워낙 귀에 박히는 후크송인데다 해당 후보의 트럭이 하루 종일 동네를 돌고 있다 보니, 어느 순간 나도 자려고 누웠는데 그 선거송을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때는 왜 유세차량을 하지 않았을까 후회감이 밀려왔다.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있구나.
뭐 낙선한 지금은 조금이라도 돈을 아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 선거유세에 돈을 미친듯이 쓰게 되는 것은 '다른 후보가 했기 때문'이다. 괜히 남 탓이 아니라, 선거는 결국 승과 패가 나누는 경쟁이고 그 상황에서 상대방이 나보다 더 효과가 좋을 때의 조급함은 엄청나게 나를 압박한다.
그리고 돈이 이미 1,000만원 2,000만원이 넘어가 버린 이상부터는 돈에 대한 감각도 무뎌지게 된다. 선거 막바지가 되어 다른 후보들과 치열한 경쟁상태가 되면 돈이 나가는 것에 대해, "이 돈 아까워서 어떻게 써"같은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다. 매몰비용의 함정이란 것이 이런 것이겠지.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당선이 되면 이 돈들을 보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선이 되거나 10% 이상의 득표를 얻으면 선거에 사용한 돈이 보전, 즉 환불 받을 수 있다. 내 선거구의 경우 10%이상은 당선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겨야 환불 받는다고 생각하면 쉽다. 이기면 돈이 남고 지면 다 날린다. 그렇게 생각하면 단순해진다.
마치 카드게임, 도박판이라고 불리는 한 장면이 간간히 연상되는 것이다. 포커 게임이 그렇다. 상대방이 배팅을 하면 따라가려면 돈을 써서 따라가야 한다. 따라가지 못하면 패배를 선언해야 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상대방을 따라가기 위해, 끝까지 가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게임이 끝났고 승과 패가 명확히 나뉘어졌다. 나는 결국 4,000여 만원의 손해액, 뭐 이것 저것 포함하면 저것만 나갔을까 싶은데, 아무튼 결코 적지 않은 손실액과 아무것도 아닌 '출마자였던' 타이틀만 남아있을 뿐이다.

덧, 내 경우에는 청년이라고 당에서 소정의 지원금을 받았다. 그건 각 당마다 처우가 다 다를 것이다. 주는 곳도 있고 안주는 곳도 있고... 다만 현재의 분위기는 청년이면 얼마, 그리고 여성이면 더 많이 지원해주는 경향이다. 물론 그 지원금을 받아봤자 선거에 들어가는 전체 금액에 비하면 그저 마음의 짐을 조금 덜어주는 정도지만.


조국혁신당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성북구의회의원선거 성북구(가)선거구
성북동, 삼선동, 동선동, 돈암제2동, 안암동, 보문동
젊은 변화, 성북
祝
구회의원 강경

개소식을 진행하는 나



냉동삼겹살. 줄여서 냉삼. 나는 냉삼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 왜 냉삼이 인기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냉삼이 그렇게 신선하게 다가오는 음식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내가 스무 살 내외일 때 고기뷔페가 유행한 시기가 있었다. 지금처럼 프리미엄 전략을 내세운 뷔페가 아닌, 약간은 허름한 듯 기름냄새 풀풀나는 가게에서 냉장고에 산더미 같은 고기를 가져와서 구워 먹는 느낌이었다. 그때 냉삼은 정말 한없이 먹었던 것 같다. 아무튼 그런 냉삼이 왜 유행일까, 을지로 골목길에서 왜 냉삼을 구워먹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 이것도 하나의 음식문화로 자리를 잡는 것을 느낀다. 맘 한켠으로 거부했던 냉삼을, 어느덧 주변인들이 즐기면서 나 또한 먹게 되었다.

상추에다 잘구운 냉삼을 올리고 파절임 잔득해서 한입 왕. 그리고 익숙하게 소주를 한잔 들이킨다. 추억의 맛이면서 조금 달라진 기분도 든다. 어릴적 먹던 냉삼은 뭔가 퍽퍽하고 기름 따로 고기 따로 놀던 질 낮은 고기의 느낌이었다면 근래의 냉삼은 뭔가 비결이라도 있는지 고기의 하모니가 나쁘지 않고 그냥 소금장만 찍어먹어도 충분히 맛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게 있었다.

하지만 그때의 맛과 지금의 맛이 어느 게 더 낫고 덜하냐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때의 맛은 그때의 맛 데로, 지금의 맛은 지금의 맛 데로 충분히 좋기 때문이다. 아마 늘 좋은 사람들과 냉삼을 먹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월간 피그헤드랩> 및 관련한 모든 콘텐츠 저작권은 피그헤드랩(Pigheadlab)과 편집자, 개별 콘텐츠 당 창작자에게 있습니다. <월간 피그헤드랩> 내 콘텐츠 사용 등의 문의는 피그헤드랩에 우선하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월간 피그헤드랩>은 무가지이며 온라인, 문화 공간 등에 무료 공개 및 배포하고 있습니다. 늘 새로운 필진을 환영합니다.

월간 피그헤드랩 Monthly Pigheadlab, 2026. 6 / 42호
발행/편집 : 오종원
발행처 : 피그헤드랩 Pigheadlab (https://www.pigheadlab.com/)
※ 웹사이트 내 PDF로 관람 가능, 단체 및 장소 대상 무료 배포

문의 : pigheadlab@gmail.com / 01082339033 / 인스타그램 DM가능
이번달 참여 필진 : 김희진, 오종원, 이채연, 조은영, 한량윤씨